

배포일시	2020. 6. 23.(화) 11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허복행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99

24일부터 대전/세종/충남 장마철 들어

- 24~25일 비, 24일 오전~25일 아침 강한 비
 -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~30mm 강한 비 곳
- 6월 28일 ~ 7월 1일 다시 장맛비



[6월 24일 밤] 우리나라 주변 예상 구름과 기압계 모식도

[강수 전망]

- (원인과 전망) 24일(수) 새벽~25일(목) 오전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(그림 ①)과 함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대전/세종/충남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.
 - 24일 새벽 충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,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
 -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다시 제주도 남쪽먼해상으로 남하하면서, 25일(목) 낮(12시)에 서쪽지역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여 밤(21시)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

- (강수량·강우강도) 곳곳에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~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, 24일 오후~25일 아침은 정체전선을 따라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(그림 ②)와 북쪽에서 유입된 건조공기로 인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(그림 ③)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

- **예상강수량(24일 새벽(00시)~25일 밤(21시))**
 - 대전, 세종, 충청남도 30~80mm

- (변동성) 저기압(그림 ①)의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,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향후 장마 전망

- 26일 경 저기압(그림 ①)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해상에 머물겠습니다.
- 28일(일) 경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하여 7월 1일(수)까지 대전/세종/충남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,
- 저기압 이동경로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 최신의 중기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[풍랑 전망]

- 서쪽에서 저기압(그림 ①)이 다가오면서 24일 서해중부먼바다는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m로 물결이 높게 일겠으며, 서해중부앞바다에서도 시속 25~47km(초속 7~13m)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.
-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해 서해중부먼바다는 24일 새벽에 풍랑특보 발표 가능성이 높겠으니,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
[기온 전망]

- 23일은 남동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에 의해 가열되면서 낮까지도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31℃ 이상 올라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.

- 24~25일은 비구름에 의해 햇볕이 차단되면서 낮 기온이 26℃ 안팎으로 폭염특보(대전, 세종, 천안)는 해제되겠지만,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습한 공기로 인해 체감온도는 1~2℃ 가량 더 높겠습니다.

- 이후 이번 주말(27~28일)에도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낮 기온이 30℃ 가까이 오르는 지역이 많아 덥겠으니,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